



<http://www.jbje.kr>

전주교육

JEONJU EDUCATION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JEOLLABUKDO JEONJU OFFICE OF EDUCATION

올 한 해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며 성장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첫 달이 설렘으로 가득하다면 12월, 매듭 달은 아쉬움으로 가득한 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잘하지 못해 아쉽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전을 하였다든 뜻이기에 내년에도 더 많이 도전하고 아쉬워할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지난 일 년 동안 학교와 가정에서 전주교육발전을 위해 응원해주고 헌신해주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해에도 『신뢰와 협력으로 행복한 교실을 가꾸는 전주교육』 실현을 위해 지혜와 재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학기 동안의 결실을 제40호 전주교육 소식지에 담아 보았습니다. 다른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교육 참여활동 및 학생들의 학교생활 모습을 살펴보고 서로의 학교에 도움과 정보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전주교육가족 여러분!

전주교육은 선생님이 학생을 배움의 주체로 보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학생의 진로 이해와 탐색을 위한 진로체험활동, 융합과학교육과 틈새 신체활동을 포함한 생활 속의 예체능교육, 독서 토론교육, 실용영어교육은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전인교육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더욱더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 공교육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교육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학부모 교육,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유도과 봉사 활동 확대,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부 활동은 전주교육을 더욱더 공고히 해 줄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과 교사의 열정, 학부모의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은 앞으로도 교원들이 학생과 더불어 배움과 성장이 있는 행복한 수업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중심의 학교문화와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전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40호 전주교육 소식지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각 학교의 선생님들과 편집위원들께 이 지면을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 12.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진봉



12



Contents

- 02 교육장 인사말
- 04 특집 1 학습공동체 - 신일중 덕진초
- 06 특집 2 다꿈학교 - 금평초 금암초 전일초
- 08 연구·혁신 - 북일초 서문초 신동초 동중
- 09 특색·진로 - 만성초 지곡초 효문여중
- 10 텃밭·김장 - 기린초 전주유 삼전초 용와초
- 11 사제동행 - 솔빛중 동북초 용덕초 성심여중 대성초
- 12 특색있는 교육과정
온샘유 대정초 반월초 전주초 온고을중 효자초 평화초 중산초 기전중
- 14 인성·인권
미산초 송천초 신성초 기린중 덕일중 용흥중 효정중
- 16 학예행사
만성초병설유 문학초 서천초 초포초
서원초병설유 풍남유 양지초
- 18 학교소식
동초 문정초 아중초 완산초 전라초 중인초 팔복초 화산초 아중중 전일중
- 19 독서교육
평화중 풍남중 우림초 전북중 오송중
- 20 동아리 활동
용소초 인후초 중앙초 효림초
- 21 건강·스포츠
서곡초 원동초 풍남초 인봉초 오송초 서전주중 진북초
- 22 우리 청 소식

전주교육

2014. 12. 제40호

발행처 :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발행인 : 교육장 최진봉
 편집인 : 교육지원국장 노인숙
 총괄 : 초등교육과장 김태수
 기획 : 장학사 김윤희
 커버사진 : 최영민
 편집위원 : 강인순 최영민 변종원
 김경원 이운산 박세라
 인쇄/디자인 : 청동디자인 223-8804

특집 1 - 학습공동체

터 놓고 말하고, 가슴으로 듣기



교육공동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사

전주덕진초등학교(교장 임창근)는 교사가 성장하는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난 10월 '찾아가는 독서 토론'을 운영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나누고, 소통과 공감을 통한 참여와 협력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사 자생적 노력이다.

교육과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고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 교사는 '내가 하고 있던 고민을 다른 선생님들 또한 똑같이 하고 있음을 공유하면서 함께 모여 생각하고 나누는 학습공동체의 힘을 느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두 차례의 교육과정 워크숍도 열렸다. 밤 10시가 넘는 늦은 시간까지 교육의 목표와 실천방안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소통과 공감,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한 덕진초의 뜨거운 열정이 새로운 감동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





생활 · 수업 협약으로 존중과 배려의 학교를 만들다

전주신일중학교(교장 김인수)는 지난 5월에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가 함께 모여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는 생활 · 수업 협약식'을 열었다. '생활 수업 협약'은 학교생활과 수업의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말한다.

그 간, 협약 내용 마련을 위해 각 자치회별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다. 3월에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모여 생활 · 수업 협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약 의의를 함께 나누었다. 이후,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자치회별 3개씩 총 9개의 협약 내용을 확정하였고,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함께 이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교사 실천 약속으로는 '인격적으로 대하기 · 칭찬하기 · 이름 외우기', 학생은 '친구에게 욕설 · 비방하지 않기 · 선생님을 존중하기', 학부모는 '따뜻한 말로 인사하기 ·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대화하기' 등이 포함되었다.

협약 내용 실천을 위해 각 자치회별로 구체적인 노력도 전개하였다. 교사들은 사제동행 멘토링을, 학생회에서는 협약내용을 중심으로 '신일인의 품격' 캠페인 운동을, 학부모회에서는 감정코칭 학부모 연수, 따뜻한 아침 맞이 등의 노력을 하였다. 특히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손수 만든 주먹밥을 나눠 주고, 응원의 마음을 담아 꼬옥 안아주는 '따뜻한 아침 맞이'는 신일중학교의 특색 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교육주체가 하나 되어 보여준 노력은 학교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며, 생활지도 방식에서도 대화와 소통이 우선시되고 있어 '가고 싶은 학교'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특집 2 - 다꿈학교

응크리지 말고

서로를 활짝 열어요

1 함께 소통하고, 함께 꿈꾸는 학교

전주금평초등학교(교장 서명기)에서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우관계 개선과 학교 적응을 돕고 있다.

각 학급에서는 매일 '다꿈 놀이한마당'이 펼쳐진다. 학생들은 여러 나라의 교구를 이용한 놀이 활동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간접 체험하고 다문화에 대한 열린 시각을 함양한다. 개별적으로는, 일반학생과 1:1 결연을 맺고 직업체험과 전통공예체험을 실시하였다. 친해지기를 원하는 친구와 결연을 맺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교우관계를 증진시키고 의사소통의 적극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에버랜드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놀이문화체험도 실시되어 가족 간 서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그 밖에도 교사와 함께하는 압화 체험,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 멘토링, 학급별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의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교육 주체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다꿈 교육활동이 함께 소통하고, 함께 꿈꾸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 다르지만, 같은 우리

전주금암초등학교(교장 김연수)에는 20명의 특별한 친구들이 있다. 몽골, 이집트, 에콰도르 등의 나라에서 부모님을 따라 이곳에 왔거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이다. 이 학교에서는 '특별한 친구들'이 문화적 차이,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구촌 문화교실'과 '만나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구촌 문화교실'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교사가 되어 각 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풍습, 의복,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외국의 모습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6학년까지 모든 반이 이 수업에 참여하여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을 없애는 동시에 세계를 더 넓게 바라보는 안목도 기르며 지구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

'만나클래스'의 '만나'는 '맛나다'의 뜻에서 가져온 말로 각 나라의 맛난 음식을 요리하고 먹어보며 문화를 몸소 느껴보는 프로그램이다. 7회기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의 우라마, 일본의 데마끼, 필리핀의 림피아, 러시아의 올리베 등을 만들고, 만든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며 학생들은 오감을 통해 세계를 배운다. 함께 세계를 공부하며 더욱 더 가까워진 친구들은 "내 친구가 외국인이란 것을 깜박 잊을 때도 있어요."라며 허물어진 마음의 경계를 보여주었다. 함께 투닥투닥 장난치고, 깔깔 웃는 모습에서 나와 나의 국적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



세계를 품는 학교



01



02



3 따뜻함을 선물해 준 친구들

중국어 원어민 강사 첸시(중국)



지금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설렘과 떨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타국인 한국에서, 그것도 학교에서 난생 처음 수업을 하게 된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전일초등학교(교장 최기대)에서의 생활 중 가장 좋았던 부분은 바로 학생들과의 만남입니다. 학생들 덕분에 웃을 수 있었고, 하루하루가 행복했기 때문에 매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 외에도 제 교실에 자주 들러 도움 줄게 없는지 살피고, 한국말도 가르쳐 주곤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진심 어린 눈빛과 미소를 볼 때마다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느껴져 '나 또한 이 친구들에게 무엇이든 큰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대한민국' 하면 맛있는 음식과 멋진 경관을 떠올립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 많은 곳을 여행하며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끼고 돌아 갑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전일초 친구들에게서 느낀 따뜻한 마음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방문하여 제가 느낀 이 따뜻함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4 가슴 속 벅차오르는 행복

지구촌 문화교실 강사 사랑고아(몽골)



한국 사람과의 대화 중 많이 받는 질문은 '정말, 몽골에서의 교통수단은 '말'입니까?' 이었습니다. TV에 보이는 몽골의 모습이 대부분 넓은 초원이나 말 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몽골인으로서 '몽골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몽골을 소개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전통 문화와 기념일, 축제 등 전반적인 소개 뿐 아니라 몽골의 유목민 생활 문화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수업의 마지막 즈음입니다. 학생들이 '몽골이 이런 나라군요. 다르게 생각했어요!' 라며 소감을 이야기해주는 그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행복해집니다. 또, 아이들이 엉덩이까지 들썩이며 손을 들고 질문하는 열정적인 모습에 두 시간이나 되는 수업 시간이 모자라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벌써 다음 학기가 기대됩니다. '몽골의 어떤 모습을 소개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전주의 여러 초등학교들과 만나 다시금 벅차오르는 행복을 느끼고 싶습니다. 전주교과



03



01

1 꿈과 행복을 키우는 다양한 학년 특색활동 운영

전주북일초등학교(교장 안종호)는 2013년도부터 혁신학교를 운영해오면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학년·학급특색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3학년은 뇌교육 해피스쿨과 행복한 책임기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4학년은 학생 예술 문화 동아리와 바른 먹거리 교육, 5학년은 자격증 취득하기 활동과 우리교장 역사탐방활동, 6학년은 도당산과 전주천에서 생태환경체험활동을 펼쳤다. 이처럼 학년별 다양한 체험과 동아리 활동이 학생중심으로 운영되어 꿈을 키워가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연구·혁신

학교의
변신은 무죄!



02



03



04

2 융합인재교육(STEAM) 시범학교 운영 보고회

전주서문초등학교(교장 장택수)는 지난 10월 24일에 융합인재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힘쓰시는 도내 50여명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융합인재교육(STEAM) 시범학교 운영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2년간의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발표하고 일반화 하는 자리로 수업공개 및 수업협의, 융합인재교육 시범학교 운영 결과 발표가 있었으며, 융합인재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등 융합인재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얻어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3 학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

전주신동초등학교(교장 강권현)는 2년간의 혁신학년을 운영 후, 올해 혁신학교로 지정받았다. 기대가 큰 만큼 학부모들의 걱정도 많았기에 첫 해에는 학부모 연수를 통해 학부모와 지속적인 소통에 힘쓰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재현 소장, 박승배 교수, 신성욱 PD, 서정초 교사 이경원, 이광호 소장, 학부모 네트워크 박은진, 엄영옥 대표를 학교에 모셔 학부모 연수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과거 학력관에서 벗어나 의미있는 배움과 성장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다. 학부모들이 민들레 홀씨처럼 좋은 기운을 전파하여 행복한 혁신학교를 만들어가는데 함께하는 역할을 해 주시리라 기대한다.

4 에너지의 날 운영

전주동중학교(교장 박봉엽)는 올해 부터 2년간 에너지절약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에너지절약 실천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10월 29일 에너지데이를 운영하였다. 아나바다 반짝 장터, 글짓기대회, UCC만들기대회, 창작만화그리기대회, 경제신문만들기대회, 개사하여 노래부르기대회, 문자도그리기대회 등 총 11개 분야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여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할 것을 다짐했다. 한주교과

1 학급별 개성만점 행복학급 '행복36호점' 운영

전주만성초등학교(교장 김진상)는 노력중점 사업으로 '만성 2040 VISION 4'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꿈과 행복을 찾고 있다. 학급별 '행복1호점(1-1반)'부터 '행복36호점(6-5반)'까지 총 36호점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하는 개성만점 다양한 학급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생들은 오카리나 연주, 댄스, 종이접기, 칠교놀이, 북아트 등 1년 동안 행복학급에서 정한 활동을 열심히 갖고 닦았으며, 지난 11월 5~6일 그 노력의 결과를 학습발표회에서 멋지게 발표하였다.

2 꿈을 찾아 떠나는 진로 교육

전주지곡초등학교(교장 박인순)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갖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 여성교육연구소 김소현 소장은 5학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세계와 미래 사회의 직업 변화에 대하여 설명 해주었으며, '나의 생애수업' 저자 김성호 교수는 생명 존중의 필요성과 과학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한 6학년들은 유수연 변호사를 통하여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 및 하는 일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꿈으로 세상을 바꾸다'의 저자 장대진 강사(대학생)와의 만남에서는 독서교육을 통한 공부기법 및 자신의 꿈 찾기의 중요함을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3 학부모와 함께 꿈꾸는 나의 진로

전주효문여자중학교(교장 백현)에서는 11월 21일, '경찰관의 역할, 사교댄스, 바리스타, 피아노조율, 헤어미용' 등 학부모 멘토 수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1학년 8명의 학생들은 익산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하여 인명구조장비 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등을 통해 숲의 소중함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경험하고, 헬기체험을 통해 항공인의 꿈을 키웠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이 뜻깊은 활동은 경제뉴스에 실려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게 되었다.

특색 · 진로

작은 행복이 큰 꿈 되어

4 세넷가에서 만난 소중한 생명들

전주우전초등학교(교장 강삼환)에서는 삼천생태탐구주간을 맞이하여 전교생이 삼천(세넷가)의 생태를 탐구하였다. 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탐구한 세넷가에는 기생초, 개망초, 달개비 등의 식물과 메뚜기, 여치, 노린재 등 동물이 한가득이었다. 학생들은 세넷가의 이름 모를 동식물들을 만나면서 눈으로 관찰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본 것들을 생태보고서로 열심히 작성하였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생명들에 대해 느끼는 시간이었다. 전주교육





비비GO! 나누GO! 즐겁 *go!*

텃밭 · 김장

1 유·초·가정이 하나 되어 행복을 나누는 학교

전주기린초등학교(교장 임규봉)는 유·초·가정이 하나 되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김장 김치 나누기 지원 활동을 하였다.

초등에서 무농약으로 정성껏 재배한 배추 200여 포기를 병설유치원 유아 50여 명이 뽑아 나르는 활동에 참여하였고, 김장은 본교 학부모 20여명의 자원봉사로 진행되었다. 김장 후, 이웃들과 김치를 나누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협동과 나눔의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2 텃밭에서 고운 심성을 키웠어요.

전주유치원(원장 이옥희)은 봄부터 가을까지 온갖 푸르름이 가득한 텃밭활동을 하였다. 텃밭은 일곱 색깔 무지개 반이 씨앗과 모종을 심고 물을 주며 사랑으로 키웠던 즐거운 학습장이었다.

봄에는 상추, 고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옥수수, 시금치, 가지, 고구마 등을 정

성스레 가꾸고 친구들과 나누어 먹고 또 가정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먹으며 자라는 과정을 이야기 나눴다.

가을에 심은 무와 배추, 파는 김장활동으로 결실의 즐거움을 가졌다. 또한 텃밭에서 방아깨비, 잠자리 등 곤충들을 관찰하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한 전주유치원 친구들은 더욱 고운 심성을 갖게 될 것이다.

3 사랑 천사단의 아름다운 꽃향기

전주삼천초등학교(교장 김수연)는 '사랑 천사단'이라는 아름다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자원봉사단을 만들었다. 공동체 의식 함양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지역의 어려운 환경 속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재배의 기쁨은 물론 배려와 나눔의 기쁨을 직접 느껴보는 소중한 경험을 익혔다. 그 뿐 아니라 자장면 나눔 봉사, 우쿨렐레 재능 나눔 등의 체험적 인성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

며, 나누는 기쁨이 모두에게 큰 행복을 안겨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나눔 실천 '김장문화체험'

전주용와초등학교(교장 김재원)는 2년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계학교로 지정되어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11월 1일 학생 40여명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김장체험'을 통해 나눔을 실천했다. 이를 통해 지적, 정서적 호기심이 충족되었고 아이들의 따뜻해진 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전라북도 아동보호기관(네이비스)를 통해 어려운 친구의 가정으로 용와초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해졌다. 전주교육

사제동행

1 백제인의 숨결을 찾아서

전주솔빛중학교(교장 김영자)에서는 11월 13일 수능일(임시 휴업)에 역사 교과에 흥미가 있는 학생 30명을 모집하여 백제 문화의 중심지인 공주, 부여로 백제문화 탐방을 다녀왔다.

1학기에 천문대 여행을 다녀온 바 있으며, 2학기에는 공주 무령왕릉, 공산성, 부여 정림사지와 부소산성 등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 학습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선조들의 숨결과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었으며 역사와 국가에 대해 생각해보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2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토요 문화 체험

전주동북초등학교(교장 한영희)는 교육복지 연계사업으로 가정에서 문화체험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토요일 문화체험을 6년째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영화 체험, 천연 화장품 만들기, 나만의 화분 만들기, 다용도 수납함 만들기, 요리 등 여러 문화 체험을 통해 만드는 즐거움도 느끼고, 자신의 소질을 발견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 토요일 문화체험 활동은 사제 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학부모가 학교 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3 주산 암산은 내 친구

전주용덕초등학교(교장 하태룡)의 교장 선생님께서는 주2회 2시간씩 2년째 방과후 주산 암산교육을 통해 교육기부를 실시 중이다. 또한 4학년 5명을 대상으로 주산 3급을 목표로 아침시간 주5회 심화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14 전북 방과후학교 어린이 주산암산 경기대회 및 전국 주산암산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4학년 김하영, 이시은, 박예빈 학생이 개인종합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4

학년 박예빈 학생이 쓴 글이 제6회 선생님 자랑대회 사례대상으로 선정되어 감사장을 수여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4 사제동행 영월 역사기행

전주성심여중학교(교장 이나영) 7월 5~6일 교육복지부 사업으로 사제동행 역사기행을 다녀왔다. '하늘의 별, 땅 위에 떨어지다.'라는 주제로 영월의 단종에 대한 역사기행과 별마로 천문대에서의 천체 관련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뜻 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비운의 왕 단종이 자기들과 비슷한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 안타까워했고, 쓸쓸한 청령포의 풍경에서 유배지의 삶에 대해 여러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별마로 천문대에서 관측한 그 날 밤하늘의 별과 달의 모습은 아이들의 꿈을 한층 더 키워준 기회가 되었다.

5 선생님! 사물놀이 같이 해요!

전주대성초등학교(교장 김세철)는 국악 수업시간에 틈틈이 배운 3~4학년 아이들의 우렁찬 사물놀이 울림이 전주대성초등학교를 가득 메운다. 대성초 교사 전체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사제동행 사물놀이 한마당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한다. 아이들은 선생님과 같이 배우니 더욱 신명나는 사물놀이 한판을 펼치는 듯하다. 아이들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어둠속에 불빛이 우리를 비추듯 사물놀이를 통해 사제가 하나됨을 느끼고 대성초 학생들 마음속에 불빛처럼 환한 추억이 되기를 희망한다. 전주교육



01



02



04



03



05

특색있는 교육과정

매일 만나는 특별한 수업

1 애들이! 온샘 작은 숲에서 놀자!

전라북도 숲공학교인 전주온샘유치원(원장 박선엽)에서는 나무를 관찰하거나 흙을 만져 보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향기에 취해보는 과정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견지산, 치명자산 등의 인근 숲을 이용하여 연중 유아 숲체험을 실시하고, 또 유치원 뒷뜰을 '온샘 작은 숲'으로 조성하여 학급별 '우리반 아지트'를 꾸미고 아침산책활동 시간과 오후 바깥놀이 시간을 이용해 자연과 이야기하고 있다. 유아들은 나무에게 편지를 써서 매달아 주기도 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2 미래교육사례 국제적으로 눈길

전라북도교육청지정 U-러닝 미래교실 운영학교인 전주대정초등학교(교장 하영숙)의 교육 사례가 ICT 국제심포지엄과 융합과학 아시아·태평양 교육회의에 초청 발표되었다. 송은정 교사는 국제기구 관계자 및 교육정보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보과학 분야의 혁신교육사례를 발표했다. 그동안 전주대정초는 '21세기 학습자 역량 신장'을 주제로 수업개발과 학생동아리 활동에 힘써왔다. 김선옥 교감은 "미래교실에서의 다양한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문제해결력 및 창의력이 길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 함께 만들어가는 달빛 하모니

전주반월초등학교(교장 나경찬)는 전교생이 창체 시간을 활용하여 1인1악기 연주를 실시했다. 전문강사의 도움으로 1~2학년은 오카리나, 3~4학년은 리코더, 5~6학년은 소금을 연주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배려와 존중의 중요성을 체험하기도 했다. 학예발표회 날에는 부모님들 앞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학부모님들은 어려운 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4 자연에서 놀며 배우는 아이들

전주초등학교(교장 송경오)는 자연에서 놀며 배우는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로 기르고자 자연 생태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교사 및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학교 숲을 돌아보며 나무와 꽃의 특징을 알아보고, 교내에 있는 텃밭에 봄·가을 2회에 걸쳐 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하여 나눠 먹기도 했으며, 또한 인근에 위치한 전주천의 생태계 탐방을 실시하고 견지산과 수목원을 걸으며 동식물 관찰, 생태놀이 등의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자연과 친구 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6 학급체험활동을 통한 학급 공동체 이해하기 프로그램 실시

전주은고을중학교(교장 김진탁)는 올해 전 학년 모든 학급을 대상으로 학급 체험활동 예산을 편성하여 학급별 체험활동을 통한 학급 공동체 이해하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학급 공동체 활동을 통해 학급 구성원끼리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왕따 및 학교폭력 예방과 담임교사와 학급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학급별로 각각 개성 있고 다양한 학급 체험활동이 실시되었는데 그 중 특히 2학년 10반의 주말 이틀에 걸쳐 진행된 '산골선생님 댁 방문 자연 체험활동'은 학급학생들이 올해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으로 꼽는 행사로 매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6 내 꿈은 연기자!

전주효자초등학교(교장 박종만)는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난 1년간 국어 수업과 연계하여 연극수업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연기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격려하면서 연극수업을 하게 되었다.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작은 실수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더 좋은 공연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에서 결과보다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일주일에 한번이지만 틈틈이 연습한 결과 학예회에서도 좋은 무대를 선보일 수 있었고, 자신을 표현하는 즐거움을 배울 수 있었다.



평가 개선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신나는 학교 만들기

전주중산초등학교(교장 이용덕) 4학년은 올해 학력신장 역량강화 모델학교 사업을 운영하였다. 기존의 4회 학력평가를 2회로 줄이고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배움이력철'이란 형식을 통해 학부모에 배부하고 학부모와 학교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교사의 교육과정 재량권을 회복하여 의미 있고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월 1회 운영된 '책가방 없는 날'은 과학교과와 연계한 천변 건기 및 생태 탐험, 녹색교육과 연계한 스콜팜, 토피어리 만들기, 사회교과와 연관된 도청견학 및 다른 나라의 음식을 조사하고 만들어 먹는 다문화교육, 빙상경기장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학생들은 위와 같은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학교 다니기가 더욱 즐거워졌다고 말한다.



06

7 전통문화 체험

전주평화초등학교(교장 이상범)는 주민참여제안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던 전통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선조들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글이나 사진으로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 느끼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옛것은 따분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우리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고, 더 나아가 아끼며 보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일깨우게 하는 마음가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인주교과



07



분단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오다

전주기전중학교(교장 황치형)는 통일기행으로 공동경비구역JSA를 다녀왔다. 전주에서 파주까지 가는 길이 가깝지는 않았지만 평소 개인적으로 쉽게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 전주에서 임진각을 걸쳐 판문점, 도라 전망대를 다녀온 여정 동안 학생들은 교과서에서만 배운 내용들과 북한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 분단의 현실을 너무 쉽게 잊고 지내면서 무감각해진 마음에 통일을 향한 마음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인성 · 인권

서로 도우려 한 발 앞으로

알콩 달콩 온가족 뒤편 야영

전주미산초등학교(교장 조춘수)는 교육 공동체의 화합,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온가족 뒤편야영을 운동장에서 실시하였다. 선생님,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각 모둠별로 텐트를 같이 치고, 저녁 식사도 직접 준비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캠프파이어, 풍등 날리기, 염색 활동 등의 활동을 통해 다른 친구들과 협동하는 마음을 배웠으며, 미산 교육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참여한 이들 모두의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들이 만들어진 뜻 깊은 행사였다.



01

1 성품 리더를 꿈꾸는 송천 어린이

전주송천초등학교(교장 김한수)에서는 학교 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가 심각한 요즘 바른 인성의 함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매월 그 달의 인성 덕목을 정해 인성 방송을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방송을 듣고 성품 노트를 작성하면서 인성에 대해 배우고, 한 달 동안 학교와 가정에서 인성 실천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성 교육 활동을 통하여 도덕성이 경쟁력이 되는 미래에 우리 송천 꿈나무들이 성품 리더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02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용서와 화해의날(Apple Day)' 운영

전주신성초등학교(교장 이문연)에서는 11월 11~15일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용서와 화해의 날(Apple Day)'을 운영했다.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또래 관계에서의 갈등이 양따나 학교 폭력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개개인이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며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학교 차원의 지원을 마련하지는 취지에서 행사를 추진하였다. 이 기간 동안 재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과편지쓰기에 총 636명의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참가자 전원 학교장상을 받았다.



③ 師父子 同行 地域사회 자연·문화 체험 활동



전주기린중학교(교장 조남현)는 교사·학생·학부모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상의 숨결이 느껴지는 문화유산 및 향토 축제를 체험하는 활동을 함께 하였다. 11월 1일 토요일을 활용하여 교직원 16명, 학생 85명, 학부모 18명 총 119명의 구성원이 순창군 강천산 탐방 및 장류축제에 참가하였으며, 이 날 활동은 교사-학생, 학생-학부모, 교사-학부모 간 대화의 기회가 되었고, 산행 중 학생 상호간의 협력활동은 학교부적응 해소와 학교폭력에 방에 기여하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03



04



05



06



④ 인성·인권 주간 최고 프로그램

전주덕일중학교(교장 유영상)는 인성·인권 주간에 상담심리전문가를 초청하여 '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학급단위로 한 시간씩 학생연수를 진행하였다. 많은 사진들 속에서 과거-현재-미래의 나를 상징하는 사진을 한 장씩 찾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숨어 있던 꿈과 희망, 아픔과 시연들이 사진 한 장으로 살포시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소중한 친구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였다.

⑤ 아버지와 함께 하는 배구대회

전주용흥중학교(교장 배인숙)에서는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선생님이 함께 하는 배구대회가 11월 8일 전주용흥중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학부모회 주관으로 학부모, 자녀, 교사가 한마음으로 배구공에 마음을 실어 서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 학부모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짬을 내어 자녀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정성이 강당 안을 열기로 가득 채웠다. 학부모 14분, 학생 16명, 교사 12명이 참가하여 함께 뛰고 땀 흘리며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아이

들 모두가 하나가 되고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 좋은 행사였다.

⑥ 다양한 놀이문화를 통한 균형 잡힌 인성 형성

전주효정중학교(교장 김홍석)에서는 다양한 놀이를 통하여 자신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질서 구현과 덕성을 함양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과 존중의 의식 배양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즐거운 학교·행복한 교실 운영, 삶과 함께하는 문화기행, 다양한 문화 콘텐츠 관람 및 또래집단 상담 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성과로 행복한 학교생활 영위와 건전한 학교놀이 문화가 형성되었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가 조성되어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에 기여하였다. 전주교육



02
01 03



School NEWS

학예행사

실수해도 괜찮아

1 귀엽고 깜찍한 꿈나무발표회

11월 4일 전주만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김진상)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하고자 유치원 단독으로 '꿈나무발표회'를 열었다. 조금은 떨리고 설레기도 했지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께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악기연주며 귀엽고 깜찍한 율동까지 열심히 하였다. 우리 아이들은 이날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도 키우고 몸과 마음이 훌쩍 자랐다.

2 우리 교실에 세뭇 잔치가 열렸어요.

전주문학초등학교(교장 권희대)에서는 10월 31일에 아주 특별한 학예회가 열렸다. 강당 무대에 오르던 기존 학예회와는 달리 1~6학년 46개 교실에서 학부모님들을 초대하고 학급 잔치를 하였다. 1년의 교육과정과 학급 특색을 담은 음악회,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발표 방식을 활용하였고 학생들은 특기와 흥미에 맞게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날의 잔치를 보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그동안 먼발치서 5분여의 무대를 보고 서둘러 카메라에 자녀 모습을 담던 것과는 달리 교실이라는 아늑한 공간에서 1시간 동안 지켜볼 수 있어 생생하고 뜻깊었다고 한다.

3 서천 꿈나무 학습발표회

전주서천초등학교(교장 허예순)는 지난 10월 31일, 'Super star day 4' 를 맞아 서천 꿈나무 학습발표회를 열었다. 오카리나, 멜로디언 합주, 리코더, 기악합주, 탈춤, 부채춤 등 각 학년마다 2~3개의 멋진 무대를 준비하여 발표하였고, 방과후학교의 무대와 여러 작품의 전시도 있었다. 기분 좋은 긴장과 설렘 속에서 학생들은 그동안 준비해온 기량을 부모님들과 많은 사람 앞에서 멋지게 뽐내었다. 학부모님들과 여러 관객들은 노력의 흔적이 가득한 무대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고,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님 모두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



4 교육가족이 다함께 참여한 풀빛나루 별빛축제

지난 10월 31일 전주초포초등학교(교장 이봉로) 강당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풀빛나루 별빛축제'가 열렸다. 흥겨운 댄스, 오카리나 합주, 탈춤, 치어댄스, 팝송, 장구연주, 기악합주, 수화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케니 지를 연상시키는 까만 기발과 선글라스를 쓰고 색소폰을 연주하는 깜찍 무대를 선보인 교장선생님 덕분에 축제의 분위가 한층 고조되었다. 학생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의 색소폰 연주, 선생님들의 오카리나 연주, 출연을 희망한 가족의 피아노합주, 기악합주 등 교육가족이 다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전주교육



01
02
03



체육행사

가족과 함께 의사으샤!

1 꿈·사랑·생각을 키워가는 서원 가족 축제 한마당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지난 11월 1일 전주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영배) 수능관에서 유아들의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기르기 위한 '서원 가족 축제 한마당 잔치'가 열렸다. 폭죽과 함께 양 팀의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고 17개 종목의 신나고 풍성한 게임열전이 이어졌다. 앞치락 뒷치락 명승부를 펼친 유아들의 계주는 이날 행사의 으뜸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빠, 동생, 온 가족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경기가 진행되어 서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2 사랑·행복·나눔을 키워가는 풍남 가족체육대회

전주풍남유치원(원장 김경숙)에서는 풍남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맞벌이 가정을 배려하여 토요일날 실시한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신발다트게임, 우리 할머니 최고, 풍선놀이, 하늘을 향해 던져라, 청백계주, 이색줄다리기 등 3대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여느 행사보다도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고 유치원-가정과의 소통의 장이 된 시간이었다.

3 가족과 함께하는 양지 스포츠 창의축제

지난 10월 25일에 전주양지초등학교(교장 이영철)는 가족과 함께하는 양지 스포츠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축제는 양지초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가족 2인 줄넘기, 플라잉 디스크, 스포츠 스택킹, 비사치기, 제기 차기 등 뉴스포츠와 전통놀이가 잘 어우러진 10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교과부지정 창의경영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돈독히 하였고 양지 교육 공동체가 하나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전주교육



학교가 들썩들썩

1 자라 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현장 체험

지난 10월 3일 전주동초등학교(교장 이동희) 3~6학년 관악부 학생과 밴드부 학생 38명은 '자라 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현장 체험을 다녀왔다. 이날 학생들은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며 견문을 넓히고 자신의 역할모델을 찾았다.

2 안전한 생활, 모두 함께 실천해요!

전주문정초등학교(교장 정병렬)는 재난종합체험활동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임실 119 안전체험센터 현장학습, 소방훈련, 수상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운영하였다.

3 전주아중뮤지션들, 감동의 도가니로 밀어 넣는다!

전주아중초등학교(교장 윤성길)는 10월 17일에 강당에서 내빈과 학부모님 230여명을 모시고 '아중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아중 음악회는 멜로디언, 국악, 판소리, 리코더, 시노래, 기악 합주, 오카리나, 사물놀이 등 14가지의 멋진 무대로 꾸며졌다. 무대에서는 학생들의 기분 좋은 긴장감과 진지함이 엿보였고 학부모들은 큰 박수로 칭찬과 격려를 보냈다.

4 완산골 몽실님실 마을 축제

전주완산초등학교(교장 권용진)에서 11월 21일 오후 5시부터 '완산골 몽실님실 마을 축제'가 있었다. 주민참여제안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마을 축제는 완산초, 곤지중, 완산동 주민센터, 노인정, 동문, 지역주민, 학부모, 완산골 공동체 위원 등 많은 구성원의 참여하였고, 250명이 넘는 지역 주민도 함께 하여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완산동 주민센터 용머리 풍물패가 학교 주변을 돌면서 길놀이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퓨전국악 소리애(sori애) 공연단의 각시바위 공연을 듣고, 100년이 넘는 전주완산초 옛 사진전도 함께 진행됐다.

5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알뜰시장

11월 20일 전라초등학교(교장 임은규) 강당에서 알뜰시장이 열렸다. 어린이들의 근검, 절약을 생활화하고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개최된 알뜰시장은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서, 학용품, 기타 생활용품 등을 기증받아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수익금은 전액 본교에 재학 중인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소중하게 쓰일 예정이다.

6 나를 돌아보는 뒤뜰 야영

전주중인초등학교(교장 유창현)는 세월호 사건으로 중지되었던 수학여행을 2학기에 뒤뜰 야영으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조별로 텐트를 치고, 텃밭 기른 채소를 첨가해 요리를 해서 먹은 이번 야영은 그동안의 위탁업체 야영과는 다른 감성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캠프파이어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기른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7 동물과 함께하는 신나는 현장체험학습!

10월 14일 전주팔복초등학교(교장 정병동) 전교생 111명은 식생활교육 전북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 '부안체험랜드'로 2학기 현장체험 학습을 다녀왔다. 승마체험을 통해 말과 친숙해지고, 어미소 젓 짜기와 송아지 먹이주기 활동을 통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다. 학생들은 체험활동 시 규칙을 지키며 단체 활동에 참여하였고, 승·하차

시 교통안전 및 질서를 실천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체험이 되었다.

8 세대잇기 '가을의 작은 음악회'

전주화산초등학교(교장 이흥순)에서는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주체가 되어 세대잇기 프로그램인 '가을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 지역주민들 2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올해로 제 2회를 맞아 핵가족화와 현대사회의 바쁜 일상으로 속에서 서로 소원해진 가족 관계와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9 글로벌 교육, 한·중 교류의 첫걸음을 떼다!

지난 11월 24일, 전주아중중학교(교장 김선애)에 중국 북경 사범대학 청도부속학교 교직원 및 학생 22명이 방문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시설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학부모회 어머니들이 주도한 압화 마우스 패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양국 간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의 시간이 되었고, 활동 후 학생들은 서로 이메일 주소를 주고받으며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보였다.

10 나를 찾아가는 여행

전주전일중학교(교장 김철수)의 2박3일 리더십 캠프는 꿈·희망·미래 재단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실시된 2학년 수학여행 대체 활동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고 자율적 학습을 실천하여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한 캠프는 어려운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자존감이 향상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한주교

독서교육

책속에서 농뿔 찾기

1 책으로 성장하고 함께 소통하는 독서교육

전주평화중학교(교장 현동필)에서는 노력중점으로 '독서의 생활화로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도서관 봉사단을 결성하여 학생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중 도서관 개방은 물론 매월 도서관 주간 하에 독서 관련 주제별 활동을 통해 우수 학생을 표창함으로써 독서의 생활화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사제동행 독서토론회 동아리반을 결성하여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동급생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문화를 보다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캠프

전주풍남중학교(교장 박주영)에서는 지난 10월 25일, 40여 명의 학생들과 독서 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독서캠프의 주제는 '김성희 작가와 함께하는 休'로 김성희 작가의 '내가 살던 용산'과 '먼지 없는 방'이 대상 도서로 선정되었다. 오전에는 '모듬 내포 형성, 창의적 만화활동, 맛짱 골든벨 활동'을 하였고, 오후에는 '스피드 게임, 김성희 작가 강연 및 질의활동'을 하였다. 작가의 강연을 통해 책이 쓰여 지게 된 배경과 당시 사회적 상황을 들 수 있어 더 깊이 있게 책을 이해할 수 있었다.

3 동화 작가 송언 선생님과 의 만남

전주우림초등학교(교장 김남숙)에서는 11월 28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가와 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동화 작가 송언 선생님과 의 만남을 앞두고 학생들은 교과서에 실린 선생님의 글 외에도 '돈잔치 소동', '내 맘대로 학교', '딱 걸렸다 임진수' 등 선생님께서 쓰신 책들을 읽어보면서 선생님과 의 만남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

울이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는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의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4 책 향기 그윽한 '全book中'

전북중학교(교장 강민석)의 다른 이름은 학생 모두 책을 읽고 있는 중이라는 뜻의 '全book中'이다. 학교 노력중점 사업으로 '책 읽는 학교'를 설정하고 반마다 학급문고를 비치하여 아침독서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독서 골든벨, 시영상 만들기 등 수업과 연계한 독서, 밤샘독서캠프, 작가 초청 강연회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책과 친숙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주고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한마음이 되어 책 읽는 우리학교, 사계절 내내 교정에 은은한 책 향기가 그윽한 '全book中'이다.

5 이옥수 작가 초청 강연

전주오송중학교(교장 성은주)는 '개 같은 날은 없다'로 학교 폭력 문제를, '키싱 마이 라이프'로 인권문제를, '어쩌자고 우리 열일곱'으로 청소년 노동 착취 문제를 소설로 이야기한 이옥수 작가를 초청해 작가 초청 이야기 마당을 열었다. 누구보다도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를 직접 만나 학생들은 당연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얻었다. 특히 작가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용기 내어 삶을 개척해나간 과정, 막연하게 말고 꼼꼼하게 꿈을 기획하는 방법 등을 직접 들으며 한번 더 성장하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다. 전주교육



동아리 활동

함께 하는 우리! 신나는 동아리 활동!

1 자녀와 함께하는 용소 학부모 POP(예쁜 글씨 쓰기) 동아리 운영

전주용소초등학교(교장 김철수) 학부모회는 5~7월동안 약 3개월여에 걸쳐 학부모 POP동아리를 운영하였다. 주 1회씩 9주에 걸쳐 45명의 학부모님이 동아리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였고, 더 나아가 10여분의 학부모님은 POP자격증 취득까지 성공하였다. 학부모의 교육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녀들에게는 배움에는 나이제한과 정해진 시기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고, '자녀와 함께 POP로 방문패 만들기', '학예회 학부모 POP 작품전시', '학부모 POP재능기부'로 까지 이어지는 좋은 교육적 순환효과까지 거둘 수 있었다.

2 관현악단 '아리에따' 창단

전주인후초등학교(교장 최봉식)에서는 올해 관현악단 '아리에따'를 창단하였다. '아리에따'는 '작은 노래'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 음악 용어이다. '아리에따'는 9월에 처음 모여 자생 동아리 형태로 시작하였다. 교사 지도영의 지도 아래 두 달간 연습하여 지난 10월 학습발표회에서 설레는 첫 연주를 하였고, 지금은 12월에 있을 송년연주회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 중이다. 아직 경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만은 최고라고 자부하는 이들의 행보를 주목할 만하다.



01



02

3 전북청소년영화제 은상 수상

전주중앙초등학교(교장 박숙자)는 제8회 전북청소년영화제에 '비틀린 시간'이라는 작품을 출품하여 '경쟁부문-섹션Ⅳ'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교내 12개의 문화예술 학생 동아리 중 하나인 영화동아리에서 만든 작품으로써, 조선시대 고마 '견우'가 잠에서 깨어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013년도 한옥마을에 있게 되면서 겪는 기상천외한 적응기를 다룬 내용이다.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었기에 더욱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상이었다.



03

4 신명나는 '학생동아리 활동' 운영

전주효림초등학교(교장 이종주)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신장과 바른인성교육을 위하여 중국어부, 사물놀이부, 밴드부 3개부를 구성하여 학생동아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칫 흘려버리기 쉬운 점심시간과 방과 후시간을 이용하여 말은바 동아리부에 가서 자기계발에 힘쓴다. 이런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생활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도 한방에 날려 보내고 건전한 여가문화형성은 물론 친구간 서로 배려하는 생활이 몸에 저절로 베어 신명나는 학교가 되고 있다. 전주교육



04



건강 · 스포츠

심장이 쿵! 기가 짹짹!

1 '하하! 호호! COOK! COOK!' 서곡초는 요리중!

전주서곡초등학교(교장 박용식)는 2014년 주민참여 제안사업 '하하 호호! COOK! COOK!'에 선정되어 '바른 먹거리 교육'을 위한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건강 음식 및 전통 음식 만들기' 강좌를 통해 먹거리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였고,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영양 간식과 전통 음식 실습은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2 아토피 예방 중심학교 선정 운영

전주원동초등학교(교장 김말재)는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아토피예방 중심학교, 전주시보건소 지정 아토피예방 중점학교로 선정되어 아토피 아동의 증상 완화와 건강한 피부 가꾸기 생활습관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토피 특강, 인형극 관람, 보습제 전달,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풍남 몸짱 건강사랑 프로젝트

전주풍남초등학교(교장 김병)는 전주시 보건소 지정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몸짱 건강사랑 프로젝트'를 교육복지우선사업과 연계 운영하고 있다. 매주 화·목요일 아침에 실시되며, 비만아동 중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처방사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활동을 늘려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여 준다. 또한, 참여 학생 중 우수 학생을 시상하여 참여도를 높이는 동시에 만족도를 높여 기초체력은 향상, 비만을 저하의 일석이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4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풋볼리그 왕중왕전 3위!

전주인봉초등학교(교장 박용식)는 2014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나이키 풋볼리그 왕중왕전에 초등 남자부 전북대표로 참가하여 3위를 차지하였다. 이 번 대회는 지난 11월 14~16일까지 전국에서 모인 17개 대표 팀이 경합을 벌인 자리에 전라북도 남자 초등부 축구팀을 대표로 전주인봉초는 4강전까지 진출하였다. 이 경기에서 1:1로 동점을 이뤘으나 승부차기에서 3:4로 아쉽게 패하여 3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동안 학생들의 건강 체력증진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한 값진 결과였다.

5 오송꿈나무 축구부 첫 우승을 거머쥘다!

전주오송초등학교(교장 이종철)의 오송꿈나무 축구부가 11월 20~21일 완산생활체육공원 경기장에서 열린 제18회 전주 시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첫 우승을 거두었다. 우승한 기쁨도 컸지만 그 외 최우수 선수상, 감투상, 골키퍼상 등 총 네 가지 부문에서 트로피와 상금을 받아 승리의 기쁨을 한껏 누렸다. 창단 2년 만에 첫 우승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거둔 오송꿈나무 축구부의 앞날이 무척 기대된다.

6 점심리그로 활성화된 스포츠 활동

서전주중학교(교장 박찬문)는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운영되던 축구반과 농구반 점심리그를 올해부터 학년별, 반별 리그전으로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신체를 단련시키고, 반별 응원을 하며 밝고 건강한 학교 풍토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결과 전주시장배 청소년 클럽대회에서 축구대회 우승, 전북 스포츠 클럽회장배 농구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좋은 성과를 얻었다.

7 전라북도지사배 초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 우승!

진북초등학교(교장 강운식) 야구부는 올해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를 갖고 땀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였다. 특히 야구부원들의 단합과 협동심을 높이기 위해 힐링캠프, 힐링데이를 마련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열심히 훈련한 결과, 제3회 전라북도지사배 초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한 걸음씩 앞을 향해 내딛는 진북초 야구부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전주교육

NEWS

우리 청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

전주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회장 고재용, 평화중)에서 10월 28일에 우리 지역의 소외된 지역을 찾아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하였다. 전주시 지역 학교운영위원장들은 생업에 바쁜 중에도 기부금을 모아 연탄 2000장을 구입하고, 어려운 10가구에 직접 전달하는 등 나눔을 위한 좋은 뜻에 하나가 되어 보람의 땀방울을 흘렸다.

1 가을밤 음악산책 제7회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11월 18일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어머니합창단이 모여서 제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지역 어머니 합창단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무대 위에서 선보였다. 찬조출연으로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의 현악중주단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진봉) 남성중창단이 공연을 하였는데 어머니합창단의 맑은 소리와 대비되는 남성중창단 특유의 저음과 힘 있는 공연으로 관객의 큰 호응속에 축제의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2 제6회 전북수학체험 한마당, 많은 학생들이 수학 속으로 몰들다!

지난 10월 25~26일,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함께 즐기며 스스로 생각하는 수학이라는 주제로 ‘제6회 전북 수학체험 한마당’이 개최되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전북 수학체험 한마당’은 수, 평면, 입체, 곡면, 융합, 퍼즐의 세계와 놀이, 상담, 전시 등 9개의 소주제로 운영하였다. 특히 학부모들을 위한 4D블럭, 자석 퍼즐, 블럭쌓기 등 체험활동과 수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부스 등은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성황을 이

루었다. 이 밖에도 초·중·고 84개 팀이 참여하여 열린 경정을 벌인 수학 구조물 만들기 대회, 펜타고 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리 만들기, 부등호 스토쿠 대회가 열려 수학체험 장의 열기를 더했다. 최진봉 교육장은 “교사와 학생의 노력으로 수학교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마다 열기를 더하고 있는 수학체험 한마당이 즐기는 기쁨과 발견하는 즐거움을 통해 창의성이 발현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며 만족을 표했다.

3 2014 교육장배 스포츠클럽주말리그대회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6~9월까지 매 주말마다 스포츠클럽리그대회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자율체육활동, 건강체력 증진, 활기찬 학교 분

위기속에서 학교폭력예방은 물론 1인 1운동의 평생체육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말리그는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풋살, 넷볼 경기 등 학교에서 클럽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종목으로 초:48팀 836명, 중:106팀 1684명, 고:38팀 576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주말에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인봉초와 완산중, 전주여고가 전국대회 3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스포츠클럽리그전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01



02

4 장애 청소년!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다

도내 최초 발달 장애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 '위더스(WITH US)'가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감동 스토리를 선사했다.

전주장애청소년 챔버오케스트라 '위더스(WITH US)'는 지난 9월 25일 전주전문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첫 창단 공연을 갖고 하이든의 놀람교향곡을 비롯하여 16곡을 연주하였다.

이날 창단 공연에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을 비롯하여 교육관계자, 특수교육대상학생 약 200여명이 함께하며, 음악으로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단원들을 격려했다.

세상과의 소통을 넘어 음악으로 마음을 울리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아직은 어리숙한 손놀림, 어색한 몸짓이지만 이들은 이날 그 어떤 거장도 보여줄 수 없는 최고의 연주를 보여주었다.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세상의 벽을 허물기 위한 '위더스(WITH US)'의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5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신장을 위한 디베이트 교육 실시

전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신장시키고 찬반토론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역점사업으로 디베이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디베이트 코치 양성을 위한 현장지원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19개교에서 학생 360명이 참여하는 디베이트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베이트 입문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토요일 디베이트 교실과 방학 디베이트 캠프를 운영하였다.

디베이트 교육 확산을 위해 개최한 '2014 디베이트대회'에는 초등 36팀, 중등 30팀이 참여하여 열린 토론을 벌인 결과 전주서천초등학교 권영서·이다은 학생과, 전주기전중학교 김태양·김지원 학생이 금상을 수상하였다.

6 전주거점학습클리닉센터 학부모교육 및 심리극 실시

전주교육지원청 전주학습클리닉센터에서는 9월 18일 ~11월 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학부모 교육 및 심리극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학습부진 및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고민, 어디서든 쉽게 내놓을 수 없었던 이야기, 그동안 서로 아팠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가족세우기를 통해 자신의 가정 모습을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어느 위치에서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며 심리극을 통해서 아이와의 관계, 부부관계가 개선되는 등 작은 변화를 느끼며 한발 더 아이를 향한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7 제13회 전주공립유치원 어울 한마당

전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전주공립유치원교사협의회(회장 김민자)가 주관한 '제13회 전주공립유치원 어울 한마당'이 11월 25일 공립유치원 원아 500여명 및 교원들과 함께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빨강, 노랑, 파랑, 초록 4팀으로 나누어 협동 줄다리기, 큰 공굴리기, 이어달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신나고 즐겁게 진행됐다.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질서와 협동심 그리고 건강한 심신을 기르고, 공립유치원 간 만남의 장인 연합행사를 통해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였으리라 기대된다.

8 공·사립유치원 독서거점 연합행사 실시

전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공·사립 독서거점 유치원이 주관한 제4회 공·사립유치원 독서거점 연합행사 '놀자! 놀자! 책이랑 놀자!'가 11월 4일 원아 및 교원 750여명과 함께 전라북도어린이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유아 중심의 눈높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 내용을 선정·운영하였으며 공·사립유치원의 모든 유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오전에 실시하였다.

이번 독서체험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책과의 친밀감을 제고하고 미래 사회 주역인 유아들의 바른 성장과 발달에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이해 및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전주교육



03



04



05



06



07



08

신뢰와 협력으로
행복한 교실을 가꾸는
전주교육

